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출범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김재섭)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철도대학 녹색전력IT센터에서 8월20일 열린 현판식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김문덕 한국전력 부사장, 이준현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유태환 전기연구원 원장, 최진용 일진전기 사장 등 정부·연구·산업계 주요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G8 정상회담에서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은 물론 국내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9/08/21>